

#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

김 경 민<sup>1)</sup> · 이 은 남<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을 기점으로 7.1%를 넘어 현재 8.6%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인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심혈관계질환, 악성종양, 뇌졸중에 이어 치매가 노인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2002),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의 수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조사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데, 변용찬(1997)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8.3%, 조맹제(2002)의 연구에서는 치매 유병률을 6.2~11.3%로 보고하였다.

치매는 현재까지 발병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만성질환이다(김남초, 김정희, & 임영미, 2002). 만성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치매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자, 1995)에서 치매노인의 가족들은 좀 더 높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부담감이 클수록 건강문제 또한 증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치매환자를 돌보다 보면 가족들은 지치게 되어 신체적인 질병은 물론이고 생에 대한 의욕상실과 삶의 만족감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George & Gwyther, 1986).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노인을 위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또한 극히

제한되어 있어 노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이 맡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제와 강옥모(2002)에 따르면 치매 노인을 돌보는데 월 평균 289,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 외에도 치매노인은 식사 및 용변 수발, 투약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보살핌이 필요하여, 이들을 돌보기 위해 주 간호자는 하루 평균 15.5시간 정도를 소요하고 있으며(김남초 등, 2002), 치매노인의 행동 하나 하나에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여 보호해야 하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마범순, 1999; Haley, Levine, Brown, Berry, & Hughes, 1987; Lore, Joanne, Kathleen, Shirley, & Teresa, 1999).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 간호자가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유광수(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문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 31.8%였으며, 김남초 등(2002)의 연구에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51.5%가 신체적 건강이, 48.5%는 정신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였고, 이현순과 오진주(2002)의 연구에서도 주 간호자의 31%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 간호자들은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불안, 긴장이나 기분의 침체 또는 스트레스를,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활장애, 수치심, 주의의 비난, 죄책감 등의 문제를 호소하였다(홍여신, 이선자, 박현애, 조남옥 & 오진주, 1994).

지금까지 치매 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와 관련된 국내 연

주요어 : 주간호자, 스트레스, 건강상태, 재가 치매노인

1) 동아대학교 석사과정 졸업생, 2)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투고일: 2005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15일

구들은 주 간호자들이 겪는 부양부담에 대한 연구들(권중돈, 1994; 김영자 & 이평숙, 1999; 김희경 & 윤가현, 1996; 이정자, 1995)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문제를 호소하는지 보다는 단지 지각된 건강 수준을 조사한 연구가 몇 편(김남초 등, 2002; 유광수, 2001; 이현순 & 오진주, 2002) 있었고,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를 조사한 국내 연구로는 이강오(1999)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는 재가 치매노인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를 대상으로 시도된 연구로서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간호자의 스트레스 수준이나 건강상태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환자를 집에 모시면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건강상태를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로 나누어 조사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치매 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재가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정도 및 건강상태의 차이를 파악한다.
-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가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상관성 연구이다.

###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자는 B 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고 현재 3곳의 보건소와 7곳의 노인복지관에서 치매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치매노인은 기억력, 언어,

행동, 지적 능력의 상실을 보이는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하고, 주 간호자라 함은 치매노인의 간호와 수발 등의 부양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치매 노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돌보는 가족원을 말한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0명에게 자가 보고 질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 중에서 자료가 미비하여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28명을 제외한 9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건강수준을 조사한 선행연구(이강오, 1999)에서 상관관계  $r=.318$ 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볼 때 적절한 표본의 크기는 80인 것을 근거로 결정하였다.

### 연구 도구

#### •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는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양광희 등(1998)이 개발한 가족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 개인에 맞게 다시 수정하여 15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정신간호학 전공교수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당시의 Cronbach's alpha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9였다.

#### • 건강상태 측정도구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Brodman, Erdmann, Lorge, Wolff와 Broadbent (1951)의 Cornell Medical Index(CMI)도구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동희(1998)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50문항의 4점 척도로 신체적 건강에 관한 31문항, 정신적 건강에 관한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김동희(1998)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90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3이였다.

###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04년 2월초부터 3월말까지 두 달 동안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기관의 동의를 얻은 뒤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동의한 주 간호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치매노인과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상태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치매노인과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상태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상태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치매노인의 연령은 70~79세가 44.6%, 80~89세가 38.0%로 70세 이상에서 90세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자 88.0%, 남자 12.0%였으며, 교육정도는 무학 48.9%, 초졸 38.0%로 대부분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었다. 결혼상태는 사별한 상태가 73.9%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치매의 종류로는 알츠하이머성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인 진

단명은 모르고 단순히 치매로 알고 있는 경우도 35.9%나 되었다. 치매 유병기간은 1~5년이 50.0%로 가장 많았고, 11년 이상 된 경우는 13.1%에 불과하였으며 치매 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58.7%였다.

•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연령별 분포는 50~59세가 37.0%로 가장 많았고 40세미만이 21.7%, 60세 이상이 21.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가 84.8%로 대부분이었으며 교육정도는 고졸 46.7%, 대재이상 29.4%, 중졸 16.3% 순으로 대부분이 고졸이상의 학력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89.1%였고 종교는 불교가 45.7%로 가장 많았다. 치매노인과의 관계는 며느리 41.3%, 딸 28.3%로 며느리와 딸이 주 간호자였으며 직업은 주부 56.5%, 상업 19.6%, 회사원 8.7%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 상태는 66.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간병기간은 1~5년이 44.6%로 가장 많았다.

제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정도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는 평균 평점 4점 만점에 2.93±0.62점이었으며, 스트레스 정도를 문항 별로 분석한 결과 '환자를 돌보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곤 한다'가 3.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환자로 인해 나의 여가생활이 어려워진다'가 3.29점, '나의 능력이

<표 1>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 (N=92)

| 특성        | 구분     | 실수(백분율)  | 평균(표준편차)   | t or F | p   | Scheffe |
|-----------|--------|----------|------------|--------|-----|---------|
| 연령(세)     | < 70   | 8( 8.7)  | 2.47(0.61) | 1.41   | .24 |         |
|           | 70~79  | 41(44.6) | 3.02(0.73) |        |     |         |
|           | 80~89  | 35(38.0) | 2.84(0.43) |        |     |         |
|           | ≥90    | 8( 8.7)  | 3.17(0.67) |        |     |         |
| 성별        | 남      | 11(12.0) | 3.11(0.41) | .94    | .34 |         |
|           | 여      | 81(88.0) | 2.91(0.65) |        |     |         |
| 교육정도      | 무학     | 45(48.9) | 2.87(0.54) | 1.46   | .23 |         |
|           | 초졸     | 35(38.0) | 2.92(0.47) |        |     |         |
|           | 중졸     | 9( 9.8)  | 3.34(1.29) |        |     |         |
|           | 고졸이상   | 3( 3.3)  | 2.96(0.47) |        |     |         |
| 결혼상태      | 사별     | 68(73.9) | 3.11(0.98) | 1.13   | .33 |         |
|           | 기혼     | 22(23.9) | 3.00(0.19) |        |     |         |
|           | 이혼     | 2( 2.2)  | 2.88(0.46) |        |     |         |
| 치매종류      | 알츠하이머성 | 34(37.0) | 2.99(0.44) | 4.85   | .00 | ab      |
|           | 혈관성    | 19(20.7) | 3.30(0.89) |        |     | b       |
|           | 기타     | 6( 6.5)  | 2.44(0.43) |        |     | a       |
|           | 잘 모름   | 33(35.9) | 2.76(0.52) |        |     | ab      |
| 치매유병기간(년) | <1     | 15(16.3) | 2.76(0.50) | 0.73   | .53 |         |
|           | 1~5    | 46(50.0) | 2.98(0.72) |        |     |         |
|           | 6~10   | 19(20.7) | 2.87(0.52) |        |     |         |
|           | ≥11    | 12(13.1) | 3.12(0.43) |        |     |         |
| 치매외 질환    | 유      | 54(58.7) | 3.30(0.69) | 1.80   | .07 |         |
|           | 무      | 38(41.3) | 2.79(0.49) |        |     |         |

상으로 할 일이 많다'가 3.24점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친구나 친척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로 2.22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해결되지 못한 일상생활 문제들이 많아졌다' 2.56점, '환자가 필요이상으로 보호자나 가족에게 요구하고 있다'가 2.66점으로 나타났다.

재가 치매노인과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

• 재가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정도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 치매 종류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4.85, p=.00), 혈관성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경우 스트레스 점수가 3.30점으로 기타 질환자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치매노인의 연령에

따른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90세 이상인 경우 가장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치매 유병 기간에 있어서도 11년 이상인 경우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치매 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정도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중 스트레스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교육정도(F=3.14, p=.02)와 주관적 경제 상태(F=4.31, p=.01)였다. 교육 정도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보다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 경제적 상태가 '어렵

<표 2>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정도 (N=92)

| 특성        | 구분     | 실수(%)    | 평균(표준편차)   | t or F | p   | Scheffe |
|-----------|--------|----------|------------|--------|-----|---------|
| 연령(세)     | < 40   | 20(21.7) | 2.80(0.37) | 1.67   | .17 |         |
|           | 40 ~49 | 18(19.6) | 2.98(0.33) |        |     |         |
|           | 50 ~59 | 34(37.0) | 2.84(0.11) |        |     |         |
|           | ≥60    | 20(21.7) | 3.18(1.08) |        |     |         |
| 성별        | 남      | 14(15.2) | 3.18(1.20) | 0.88   | .39 |         |
|           | 여      | 78(84.8) | 2.89(0.45) |        |     |         |
| 교육정도      | 초졸     | 7( 7.6)  | 2.65(0.79) | 3.14   | .02 | a       |
|           | 중졸     | 15(16.3) | 3.35(1.07) |        |     | b       |
|           | 고졸     | 43(46.7) | 2.87(0.42) |        |     | ab      |
|           | 대재이상   | 27(29.4) | 2.87(0.40) |        |     | ab      |
| 결혼상태      | 기혼     | 82(89.1) | 3.11(0.44) | 0.37   | .68 |         |
|           | 미혼     | 3( 3.3)  | 2.94(0.62) |        |     |         |
|           | 기타     | 7( 7.6)  | 2.73(0.84) |        |     |         |
| 종교        | 불교     | 42(45.7) | 3.02(0.78) | 1.41   | .24 |         |
|           | 기독교    | 18(19.6) | 2.99(0.41) |        |     |         |
|           | 천주교    | 15(16.3) | 2.86(0.45) |        |     |         |
|           | 무교     | 17(18.5) | 2.65(0.44) |        |     |         |
| 치매노인과의 관계 | 며느리    | 38(41.3) | 2.94(0.44) | 1.53   | .20 |         |
|           | 딸      | 26(28.3) | 2.85(0.44) |        |     |         |
|           | 아들     | 9( 9.8)  | 3.02(0.44) |        |     |         |
|           | 배우자    | 6( 6.5)  | 3.46(1.83) |        |     |         |
| 직업        | 기타     | 13(14.1) | 2.75(0.46) | 1.12   | .35 |         |
|           | 주부     | 52(56.5) | 2.96(0.72) |        |     |         |
|           | 상업     | 18(19.6) | 3.06(0.42) |        |     |         |
|           | 회사원    | 8( 8.7)  | 2.73(0.47) |        |     |         |
|           | 농업     | 2( 2.2)  | 2.23(0.70) |        |     |         |
| 주관적 경제상태  | 기타     | 12(13.0) | 3.05(0.41) | 4.31   | .01 | a       |
|           | 좋다     | 10(10.9) | 2.75(0.63) |        |     | ab      |
|           | 보통이다   | 61(66.3) | 2.85(0.41) |        |     | b       |
|           | 어렵다    | 21(22.8) | 3.27(0.95) |        |     |         |
| 간병기간(년)   | <1     | 33(35.9) | 2.86(0.49) | 0.81   | .49 |         |
|           | 1~5    | 41(44.6) | 2.94(0.76) |        |     |         |
|           | 6~10   | 11(12.0) | 2.96(0.48) |        |     |         |
|           | ≥11    | 7( 7.6)  | 3.30(0.46) |        |     |         |

다'라고 답한 경우가 '좋다'라고 답한 경우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성별은 남자가, 결혼상대에서는 기혼이, 종교는 불교에서, 치매노인과의 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직업은 상업이, 간병기간은 11년 이상인 경우에 스트레스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2>.

제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건강상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평균 4점 만점에 1.74 ± 0.41점, 정신적 건강상태는 1.77 ± 0.42점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상태에서는 '조금만 일을 해도 곧 피로해진다'가 2.64점으로 가장 높았고,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2.48점, '관절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2.42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건강상태 중 '항달 증세가 있다'가 1.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3>.

정신적 건강상태에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자주 쓰게 된다'가 2.6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나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걸린다' 2.65점, '걱정이 그칠 날이 없다' 2.4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시사항이나 명령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1.2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4>.

제가 치매노인과 주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간호자의 건강상태

- 제가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간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간호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연령이 90세 이상인 경우, 혈관성치매일 경우, 치매유병기간이 11년 이상일 때, 치매 외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나쁘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치매노인의 주 간호자의 정신적 건강상태도

<표 3>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N=92)

| 문항                            | 평균   | 표준편차 |
|-------------------------------|------|------|
| 조금만 일을 해도 곧 피로해진다             | 2.64 | 0.82 |
|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 2.48 | 1.04 |
| 관절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 2.42 | 1.09 |
|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                | 2.35 | 0.89 |
| 어깨나 등이 뻣뻣해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때가 많다 | 2.24 | 1.05 |
| 머리가 무겁거나 두통으로 고생하는 때가 있다      | 2.20 | 0.88 |
| 다리가 심하게 부을 때가 있다              | 2.09 | 0.97 |
| 눈에 피로가 오거나 또는 충혈될 때가 있다       | 2.07 | 0.86 |
| 손이나 다리에 쥐가 날 때가 있다            | 2.02 | 0.88 |
| 입맛이 없는 편이다                    | 1.99 | 0.76 |
| 몸이 확 달아오르거나 싸늘해지는 때가 있다       | 1.91 | 0.95 |
| 변비가 있다                        | 1.90 | 0.87 |
|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곳이 있다 | 1.83 | 0.79 |
| 심한 감기에 걸린다                    | 1.82 | 0.65 |
| 음식을 먹고 체하는 때가 있다              | 1.79 | 0.69 |
| 갑작스럽게 현기증이 날 때가 있다            | 1.73 | 0.79 |
| 목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 1.63 | 0.85 |
| 피부의 가려움으로 고생될 때가 있다           | 1.61 | 0.70 |
| 잠잘 때 옷이 젖도록 식은땀을 흘릴때가 있다      | 1.58 | 0.73 |
| 심장의 고동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 1.48 | 0.64 |
| 허배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 1.47 | 0.62 |
| 설사를 한다                        | 1.42 | 0.52 |
| 빈뇨증상이 있다                      | 1.37 | 0.66 |
|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 1.35 | 0.60 |
| 코가 막혀있어 답답하다                  | 1.28 | 0.48 |
| 메스껍거나 토하는 때가 있다               | 1.25 | 0.53 |
| 호흡곤란이 있다                      | 1.24 | 0.48 |
| 몸을 펴지 못할 정도로 배가 아플 때가 있다      | 1.24 | 0.46 |
| 심한체중변화가 있다                    | 1.22 | 0.47 |
| 자기도 모르게 옷에 소변을 찹끔거리다          | 1.20 | 0.45 |
| 항달증세가 있다                      | 1.08 | 0.27 |
| 전체                            | 1.74 | 0.41 |

<표 4>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정신적 건강상태

(N=92)

| 문항                               | 평균   | 표준편차 |
|----------------------------------|------|------|
|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자주 쓰게 된다             | 2.69 | 0.89 |
| 나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걸린다          | 2.65 | 0.95 |
| 걱정이 그칠 날이 없다                     | 2.44 | 0.97 |
| 자기뜻대로 즉시되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감정이 폭발한다   | 1.99 | 0.79 |
| 언제나 재미가 없고 마음이 상쾌하지가 않다          | 1.95 | 0.83 |
| 세상 만사가 귀찮고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 1.88 | 0.77 |
| 회합이나 모임에 참가했을 때에도 외롭고 쓸쓸하다       | 1.87 | 0.83 |
|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                      | 1.86 | 0.71 |
| 나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85 | 0.74 |
|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속마음을 주지 않고 벽을 둔다      | 1.77 | 0.81 |
| 별안간 어떤 충동이나 자극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된다     | 1.68 | 0.70 |
|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다         | 1.57 | 0.63 |
| 언제나 자제하지 않으면 화가 나서 실수를 한다        | 1.56 | 0.65 |
| 무서운 꿈을 꾸고 놀라 깨는 일이 있다            | 1.53 | 0.58 |
| 정확하게 일을 해야 하므로 일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 1.46 | 0.78 |
| 갑자기 소리가 나면 놀라 벌떡 일어나거나 몸이 벌벌 떨린다 | 1.38 | 0.66 |
| 누가 당신에게 큰 소리를 치면 꿈쩍 못하고 얼버무린다    | 1.36 | 0.62 |
| 지나치게 부끄럼을 탄다                     | 1.34 | 0.60 |
| 지시사항이나 명령을 잘 못알아 듣는다             | 1.28 | 0.56 |
| 전체                               | 1.77 | 0.42 |

<표 5>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N=92)

| 특성        | 구분      | 신체적 건강상태 |            |        |     | 정신적 건강상태   |        |     |  |
|-----------|---------|----------|------------|--------|-----|------------|--------|-----|--|
|           |         | 실수       | 평균(표준편차)   | t or F | p   | 평균(표준편차)   | t or F | p   |  |
| 연령(세)     | < 70    | 8        | 1.56(0.41) | 1.94   | .12 | 1.65(0.39) | 1.50   | .21 |  |
|           | 70 ~ 79 | 41       | 1.73(0.42) |        |     | 1.77(0.43) |        |     |  |
|           | 80 ~ 89 | 35       | 1.72(0.38) |        |     | 1.73(0.42) |        |     |  |
|           | ≥ 90    | 8        | 2.03(0.37) |        |     | 2.05(0.34) |        |     |  |
| 성별        | 남       | 11       | 1.68(0.36) | 0.29   | .59 | 1.97(0.40) | 2.80   | .10 |  |
|           | 여       | 81       | 1.75(0.42) |        |     | 1.75(0.42) |        |     |  |
| 교육정도      | 무학      | 45       | 1.72(0.42) | 0.73   | .54 | 1.74(0.40) | 1.23   | .30 |  |
|           | 초졸      | 35       | 1.85(0.43) |        |     | 1.76(0.41) |        |     |  |
|           | 중졸      | 9        | 1.83(0.46) |        |     | 1.84(0.48) |        |     |  |
|           | 고졸이상    | 3        | 1.65(0.42) |        |     | 1.32(0.10) |        |     |  |
| 결혼상태      | 사별      | 68       | 1.80(0.38) | 0.54   | .59 | 1.87(0.31) | 1.88   | .16 |  |
|           | 기혼      | 22       | 1.91(0.83) |        |     | 2.19(0.04) |        |     |  |
|           | 이혼      | 2        | 1.72(0.41) |        |     | 1.73(0.45) |        |     |  |
| 치매종류      | 알츠하이머형  | 34       | 1.73(0.37) | 0.48   | .69 | 1.75(0.35) | 1.61   | .19 |  |
|           | 혈관성     | 19       | 1.78(0.43) |        |     | 1.92(0.45) |        |     |  |
|           | 기타      | 6        | 1.55(0.52) |        |     | 1.52(0.41) |        |     |  |
|           | 잘 모름    | 33       | 1.75(0.42) |        |     | 1.75(0.46) |        |     |  |
| 치매유병기간(년) | < 1     | 15       | 1.60(0.36) | 0.85   | .46 | 1.64(0.35) | 0.75   | .52 |  |
|           | 1~5     | 46       | 1.76(0.42) |        |     | 1.78(0.42) |        |     |  |
|           | 6~10    | 19       | 1.77(0.37) |        |     | 1.84(0.49) |        |     |  |
| 치매외 질환    | 유       | 54       | 1.78(0.39) | 1.15   | .25 | 1.81(0.44) | 1.06   | .29 |  |
|           | 무       | 38       | 1.68(0.43) |        |     | 1.72(0.39) |        |     |  |

연령이 90세 이상일 때, 혈관성치매일 경우, 치매 유병기간이 6~10년인 경우, 그리고 치매 외 질환이 있을 때 건강상태가 나쁘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주간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간호자의 건강상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중 신체적 건강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F=3.09, p=.03)과 교육정도(F=4.72, p=.00)였다. 즉 40세미만이 60세 이상보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

<표 6>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N=92)

| 특성        | 구분      | 신체적 건강상태 |            |        |   | 정신적 건강상태   |            |        |     |
|-----------|---------|----------|------------|--------|---|------------|------------|--------|-----|
|           |         | 실수       | 평균(표준편차)   | t or F | p | Scheffe    | 평균(표준편차)   | t or F | p   |
| 연령(세)     | < 40    | 20       | 1.64(0.43) | 3.09   |   | a          | 1.75(0.41) | 0.89   | .44 |
|           | 40 ~ 49 | 18       | 1.73(0.42) |        |   |            | 1.78(0.46) |        |     |
|           | 50 ~ 59 | 34       | 1.66(0.38) |        |   |            | 1.70(0.44) |        |     |
|           | ≥ 60    | 20       | 1.97(0.34) |        |   |            | 1.90(0.36) |        |     |
| 성별        | 남       | 14       | 1.63(0.38) | 1.03   |   |            | 1.81(0.34) | 0.35   | .72 |
|           | 여       | 78       | 1.75(0.41) |        |   |            | 1.76(0.43) |        |     |
| 교육정도      | 초졸      | 7        | 1.77(.022) | 4.72   |   | ab         | 1.76(0.28) | 1.44   | .23 |
|           | 중졸      | 15       | 2.07(0.35) |        |   |            | 1.94(0.40) |        |     |
|           | 고졸      | 43       | 1.68(0.39) |        |   |            | 1.69(0.46) |        |     |
|           | 대재이상    | 27       | 1.63(0.42) |        |   |            | 1.81(0.38) |        |     |
| 결혼상태      | 기혼      | 82       | 1.88(0.72) | 0.43   |   |            | 1.87(0.16) | 1.08   | .34 |
|           | 미혼      | 3        | 1.74(0.41) |        |   |            | 1.79(0.43) |        |     |
|           | 기타      | 5        | 1.60(0.23) |        |   |            | 1.51(0.36) |        |     |
| 종교        | 불교      | 42       | 1.80(0.39) | 0.79   |   |            | 1.79(0.42) | 0.62   | .60 |
|           | 기독교     | 18       | 1.70(0.42) |        |   |            | 1.84(0.50) |        |     |
|           | 천주교     | 15       | 1.71(0.49) |        |   |            | 1.74(9.45) |        |     |
|           | 무       | 17       | 1.62(0.37) |        |   |            | 1.66(0.29) |        |     |
| 치매노인과의 관계 | 며느리     | 38       | 1.79(0.40) | 1.26   |   |            | 1.79(0.44) | 0.39   | .81 |
|           | 딸       | 26       | 1.75(0.44) |        |   |            | 1.76(0.43) |        |     |
|           | 아들      | 9        | 1.56(0.28) |        |   |            | 1.78(0.21) |        |     |
|           | 배우자     | 6        | 1.90(0.40) |        |   |            | 1.93(0.47) |        |     |
| 직업        | 기타      | 13       | 1.59(0.41) | 0.43   |   |            | 1.67(0.43) | 0.35   | .84 |
|           | 주부      | 52       | 1.77(0.42) |        |   |            | 1.79(0.44) |        |     |
|           | 상업      | 18       | 1.80(0.43) |        |   |            | 0.72(0.39) |        |     |
|           | 회사원     | 8        | 1.61(0.41) |        |   |            | 1.85(0.53) |        |     |
|           | 농업      | 2        | 1.54(0.31) |        |   |            | 1.69(0.03) |        |     |
| 주관적 경제상태  | 기타      | 8        | 1.75(0.30) | 0.89   |   |            | 1.91(0.29) | 2.29   | .10 |
|           | 좋다      | 10       | 1.76(0.36) |        |   |            | 1.70(0.35) |        |     |
|           | 보통이다    | 61       | 1.70(0.41) |        |   |            | 1.72(0.42) |        |     |
| 간병기간(년)   | 어렵다     | 21       | 1.84(0.41) | 2.31   |   |            | 1.94(0.42) | 0.51   | .67 |
|           | < 1     | 33       | 1.60(0.38) |        |   |            | 1.71(0.43) |        |     |
|           | 1 ~ 5   | 41       | 1.81(0.38) |        |   |            | 1.86(0.42) |        |     |
|           | 6 ~ 10  | 11       | 1.87(0.45) |        |   |            | 1.80(0.51) |        |     |
|           | ≥11     | 7        | 1.82(0.46) |        |   | 1.89(0.22) |            |        |     |

육정도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보다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쁘게 나타났다. 또 성별에서는 여자가, 결혼상태는 기혼이, 종교에서는 불교가, 치매노인과의 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직업은 상업이, 주관적 경제 상태는 어려운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빴으며, 간병기간이 6~10년인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쁘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적 건강상태는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성별은 남자가, 교육정도는 중학교 졸업에서, 현재의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이, 종교는 기독교가, 치매노인과의 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직업은 기타에서, 주관적 경제 상태에서는 어렵다가, 간병기간은 11년 이상인 경우에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6>.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상태( $r=.36, p<.01$ ) 및 정신적 건강상태( $r=.50, p<.01$ )와 높은 순 상관관계를 보여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의 점수가 높아 지각된 건강상태

<표 7>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간의 관계 (N=92)

|          | 스트레스 | 신체적 건강상태       | 정신적 건강상태       |
|----------|------|----------------|----------------|
| 스트레스     | 1.00 | .36**<br>(.00) | .50**<br>(.00) |
| 신체적 건강상태 |      | 1.00           | .72**<br>(.00) |
| 정신적 건강상태 |      |                | 1.00           |

\*\* p<.01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 논 의

치매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돌보는 가족원도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그로 인해 가족 기능과 그들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평균 평점이 4점 만점에 2.93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김미영(2002)의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점수 2.20점,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 가족원의 스트레스 점수 2.28점(양광희 등, 1998),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 점수 2.00점(송인숙 & 유은광, 1998)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들이 간경화나 결핵, 심근경색증 및 각종 악성종양 같은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주 간호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입원해 있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가족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이강오(1999)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가 5점 만점 중 3.21점으로 나타나 4점으로 환산하면 2.57점으로 본 연구결과에서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이강오(1999)의 연구대상자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노인인데 반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재가 치매노인이어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보다 치매노인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돌보는 주 간호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좀 더 높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재가 치매노인과 시설에 입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요인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 중 평균평점이 높았던 문항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곤 한다’, ‘환자로 인해 나의 여가 생활이 어려워진다’, ‘나의 능력 이상으로 할 일이 많다’, ‘환자 시중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 ‘환자의 장애가 걱정된다’, ‘환자를 간호하다 보면 긴장된다’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원해 있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이강오(1999)의 연구에서도 ‘나는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환자를 보면 고통스럽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환자는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환자간호 때문에 내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나는 환자의 장애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순으로 나타나 여가생활 부족과 환자장애에 대한 걱정이

주요 스트레스 문항이었던 점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Gerge와 Gwyther(1986)의 연구에서 자신을 위한 취미와 휴식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였으며, Rabins, Mace와 Lucas(1982)의 연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문제로 만성 피로, 분노, 우울,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 취미의 상실, 개인시간 부족, 간호제공자가 아프게 될 것에 대한 걱정, 새로운 역할과 책임 수행의 어려움, 죄책감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한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미영(2002)과 양광희 등(1998)의 연구에서도 환자의 장애에 대한 걱정, 환자를 간호하면서 느끼는 긴장감 및 가족의 여가 생활 어려움 등이 주요 스트레스 문항이었던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경우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비해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들 자신에게 부여되는 여가 생활이 부족해지고 치매노인의 돌발적 상황들에 대한 대처로 인해 간호 시 긴장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치매종류 뿐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뚜렷한 원인을 모르는 치매노인보다 혈관성 치매노인의 증상이 좀 더 분명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로 인해 혈관성치매 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를 보인 것은 교육정도와 주관적 경제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 가족의 자원측면에서 가족간의 사랑과 협동요인이 환자를 돌보아 주는데 힘이 되고 가족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경제수준에 따라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 양광희 등(199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김미영(2002)의 연구에서도 연령과 성별, 간병정도 및 교대자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는 다른 결과이며,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에 대한 이강오(1999)의 연구에서도 가족원의 결혼상태, 치매발병 후 치매노인과의 관계, 치매노인을 돌본 기간 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Pallet(1990)도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감을 스트레스 차원으로 보면서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원의 특성으로 연령, 결혼상태, 건강수준, 사회적 기능 및 관리능력을 들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양영희(1995)의 연구에서는 월수입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으로써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연구마다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추후에 좀 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여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평균 평점이 4점 만점에 신체적 건강상태는 1.74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1.77점으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들이 어느 정도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상태에서는 ‘조금만 일을 해도 곧 피로해진다’,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관절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등의 근 골격계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정신적 건강상태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자주 쓰게 된다’, ‘나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걸린다’, ‘걱정이 그칠 날이 없다’가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미영(2002)의 연구에서도 ‘조금만 일을 해도 피로해진다’, ‘잠이 잘 오지 않으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걸리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게 된다’는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질병은 다르지만 만성 질환자를 돌보는 주 간호자들이 비슷한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피로감을 주요 건강문제로 호소하였는데 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홍여신 등(1994)의 연구에서 주 간호자의 59%가 주요 신체적 문제로 피로를 들은 것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체적 증상 중 관절의 통증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문항의 점수가 좀 더 높았던 것은 주 간호자의 평균 연령이 김미영(2002)의 연구에서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사용한 도구는 다르지만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강오(1999)의 연구에서는 가족원의 건강상태가 5점 만점에 1.17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 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강오(1999)의 연구 대상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이기 때문에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건강상태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강오(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상태 측정도구가 신체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건강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령과 교육정도에 따라 신체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0세 미만에서보다 60세 이상의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나빴으며 고졸이나 대졸에서보다 중졸의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더 나쁘게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이경자(1995)의 연구에서 가족원의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문제가 많았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만성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미혜와 오가실(1993)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가족의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암 환자를 돌보는 주

간호자를 대상으로 한 김미영(2002)의 연구에서도 중졸인 경우가 가장 건강상태가 나쁘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 간호자들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은 환자들을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문제 이외에도 노화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문제가 영향을 미쳐서 건강상태를 더 나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원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원의 건강상태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강오(1999)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치매노인은 아니나 만성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광희 등(1998)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건강이 나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가족원의 스트레스 정도가 신체적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가족원의 스트레스 정도보다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김미영(2002)의 연구에서도 암 환자 가족원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는 자신의 본래 역할에다 환자를 돌보는 책임까지 맡게 되므로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질환을 앓거나 기존의 신체적 질환이 악화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는 만성질환자나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가 가중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간호중재를 통해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건강상태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기간은 2004년 2월초부터 3월말까지 두 달간 B시에 소재하는 보건소 및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 총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양광희 등(1998)이 개발한 가족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건강상태 측정도구는 Brodman 등(1951)에 의해 제작된 CMI도구를 김동희(199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1.0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평균 평점은 4 점 만점에 2.93점으로 중간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문항 별로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함’, ‘환자로 인해 나의 여가 생활이 어려워짐’, ‘나의 능력이상으로 할 일이 많음’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신체적 건강상태의 평균 평점은 4점 만점에 1.74점, 정신적 건강상태는 1.77점으로 비교적 좋은 수준이었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조금만 일을 해도 곧 피로해진다’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관절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건강상태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자주 쓰게 된다’, ‘나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걸린다’, ‘걱정이 그칠 날이 없다’ 순으로 나타났다.
-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 스트레스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치매종류( $F=4.85, p=.00$ )뿐이었으며, 건강상태에서는 어떤 특성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주 간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교육정도( $F=3.14, p=.02$ )와 주관적 경제 상태( $F=4.31, p=.01$ )였으며, 신체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F=3.09, p=.03$ )과 교육정도( $F=4.72, p=.00$ )였고, 정신적 건강상태에서는 어떤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는 신체적 건강상태( $r=.36, p=.00$ ) 및 정신적 건강상태( $r=.50, p=.00$ )와 높은 순 상관관계를 보여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 간호자가 지각한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상태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주 간호자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교육정도와 주관적 경제상태만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 간호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권중돈 (1994). *한국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김남초, 김정희, 임영미 (2002). 재가 치매노인의 주 수발자와 환경실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6(1), 13-29.
- 김동희 (1998). *만성질환자 가족의 건강상태와 부담에 관한 연구*. 부산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02).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건강상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와 이평숙 (1999).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담감과 우울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4), 766-779.
- 김희경과 윤가현 (1996). 치매노인 및 정상노인 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의 비교. *한국노년학 연구*, 5, 107-129.
- 마범순 (1999).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정수와 김초강 (1995).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2(1), 83-110.
- 박창제와 강옥모 (2002). 치매노인 비공식 보호의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3), 67-83.
- 변용찬 (1997). *치매관리 Mapping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미혜와 오가실 (1993).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3), 467-485.
- 송인숙, 유은광 (1998). 입원한 만성질환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 *한양의대학술지*, 18(2), 187-196.
- 양광희, 송미령, 김은경(1998).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연구. *간호학논문집*, 12(1), 118-132.
- 양영희 (1995). 만성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돌봄의 상황과 가족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7(1), 85-105.
- 유광수 (2001). 노인성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125-147.
- 이강오 (1999).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와 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8(2), 384-486.
- 이경자 (1995). 치매노인의 간호 문제와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3(2), 63-83.
- 이현순과 오진주 (2002). 치매주간호자의 치매관리전략 영향요인과 부양 부담관계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4), 629-638.
- 조맹제 (2002). 한국 노인정신질환의 현황. *신경정신학회*

- 14(5), 758-766
- 통계청 (2002). 표준통계 DB검색.
- 홍여신, 이선자, 박현애, 조남옥, 오진주 (1994). 노인성 치매 발생요인과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4(3), 448-459.
- Brodman, K., Erdmann, A. J., Lorge, I., Wolff, H. G., & Broadbent, T. H. (1951). The Cornell medical index health questionnaire, as a diagnostic instrument. *JAMA*, 145(3), 152-157.
- George, L. K., & Gwyther. L. P. (1986). Caregiver well-being ;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3), 253-259.
- Haley, W. E., Levine, E. G., Brown, S. L., Berry, J. W., & Hughes, G. H. (1987). Psychological, social, and health consequences of caring for a relative with senile dementia. *Am Geriatr Soc*, 35, 405-411.
- Lore, K. W., Joanne V. H., Kathleen, C. B., Shirley, A. H., & Teresa, K. (1999). Emotional and physical health of spouse caregivers of person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stroke. *J Adv Nurs*, 30(3), 552-563.
- Pallet, P. J. (1990). A conceptual framework for studying family caregivers burden in Alzheimer's type dementia. *J Nurs Sch*, 22(1), 52-57.
- Rabins, P. V., Mace, N. L., & Lucas, M. J. (1982). The impact of dementia on the family. *JAMA*, 248(3), 333-335.

## Stress and Health Status of Primary Caregivers Caring for Demented Elderly

Kim, Kyung-Min<sup>1)</sup> · Lee, Eun-Nam<sup>2)</sup>

1) Master of Science in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ess level and health status of primary caregivers living with demented elderly. **Method:** The subject was 92 primary caregivers who had been taking care of demented elderly at home. The research tools were a stress questionnaire and health status questionnair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direct interview with a questionnaire in the B city, from February to March 2004.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cheffe test using SPSS/PC 11.0 program. **Results:** The primary caregivers living with demented elderly showed slightly high level of stress and moderate level of health status. Moreov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tress level and the mental and the physical health status.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we recommend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to decrease the stress level of primary caregivers living with demented elderly for improving their health status.

Key words : Primary caregivers, Stress, Health status, Dementia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Eun-Nam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3 Ga-1, Tongdaesin-Dong, Seo-Gu, Busan 602-103, Korea

Tel: +82-51-240-2864 Fax: +82-51-240-2947 E-mail: enlee@donga.ac.kr